

청주읍성내의 어제와 오늘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chitecture of Chongju

김태영 / 청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Tae-Young

현대의 도시는 높낮이가 각기 다른 건물이 들쭉날쭉 하면서 수직적으로 높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건물의 모습은 똑바르게 난 도로에 의해 통일되면서 도시는 기본적인 질서를 이루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수평방향으로 전개하는 질서와 수직방향으로 전개하는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수평방향의 질서는 평면도에서 읽을 수 있고 수직방향의 욕망은 단면도에서 읽을 수 있다. 청주는 수직방향만으로 전개하는 도시민의 욕망이 수평방향으로도 전개되어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청주는 이러한 현대적 도시의 혼란스러움에 벗어나 있는 것같이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이런 연유에서 더욱 애착을 느끼게끔 한다. 1911년에서 1915년 사이에 기존의 청주읍성이 허물어지면서 시작된 청주의 근대적 도시건축의 모습은 무심천변과 우암산 자락을 끼고서 남북방향의 기다란 선형의 격자도시를 이루다가 1968년 청주역사의 이전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현재의 상당로와 사직로가 개설되면서 북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 쪽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80년대 도심주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완공을 보면서 저층의 공동주택군이 들어섰으며, 9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도심외곽의 신혼주택지에는 고층아파트군이 들어서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도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체적 도시경관으로 볼 때 타 도시와는 다르게 청주지역은 도심 외곽의 신혼주택지에 고층아파트군이 입지하고, 구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과 도심주변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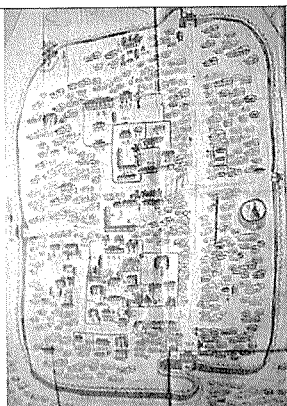
수평방향으로의 질서는 도로 뿐만 아니라 청주 읍성자리인 구도심을 중심으로 크게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까치내까지 이어지는 무심천의 수자원체계, 상당산성에서 우암산, 당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체계, 신봉동 백제고분군·운천공원·흥덕사지·사직종합체육시설단지 및 사직공원으로 이어지는 구릉체계에 의해 통일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질서는 작게는 도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철당간·압각수·충청병마절도사 영문·동헌 및 망선루를 비롯한 도심에 위치한 각종 문화재 및 유적지, 적절하게 자리잡은 중앙공원·상당공원·동공원·모충공원·사직공원·술밭공원·서운공원 및 시청앞 시민공원 등의 도심공원, 도심의 쉼터로 이용되는 공개공지 등에서 욕망이 아닌 통일된 질서를 볼 수 있다.

오늘-청주 현대건축의 전개과정

1) 청주 현대건축의 기점

청주지역에 있어서 현대라는 시기의 기점에 대하여는 정치·사회·문화·경제적인 면에서 다각적인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현대건축의 기점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지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기점이 되는 작품으로 '청주시청사'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1965년에 준공된 것으로,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친근성, 청주지역의 상징성, 형태구성체계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주 현대건축의 기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해에 대한 건축사협회의 결성에 따라 충청북도내 건축사 7인(교재범 박오군 최송심 이학로, 오석균 김현식 김태철(작고))이 발기하고, 11월 1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본회를 설립한 해이기도 하다.

청주가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60년대 접어들면서 상당로 개설공사를 착수한 때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인 1965년 12월 19일 현 청주시청사가 준공되었다. 이 청사는 제13대 이준영 시장이 당시 대학에서 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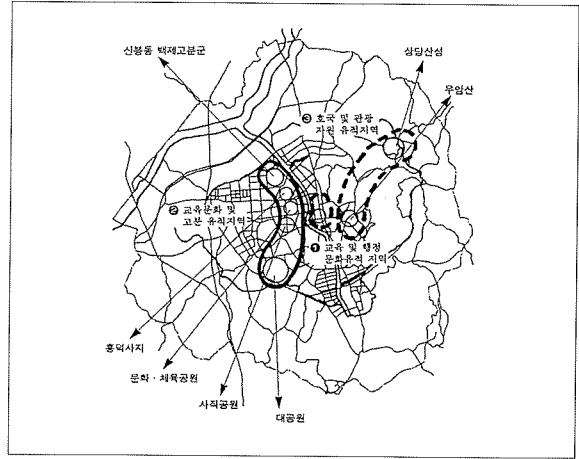
청주 철당간

청주읍성의 과거 (좌)와 현재(우)의 모습

을 잡고 설계사무소를 자영하던 건축가 강명구(1917~) 선생에게 직접 의뢰한 것이다. 작자의 말을 빌리면, “당시로서는 모든 관청건물, 국민학교 등 공관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의 시메트릭한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관청건물의 좌우대칭적인 중심강조를 없애고, 주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주 테마로 한 최초의 관청건물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또한 준공당시부터 설치된 유달리 넓은 녹지공간과 일찍부터 일반시민에게 할애된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장소로 사용되어 시청사와 시민들을 가깝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맑은 고을' 청주를 상징하는 주성(舟城)의 배 모양을 은유적-어느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청주시청사는 원경에서 근본적인 주제가 나타난다. 지면레벨인 대지의 지평선은 바다, 강, 혹은 무심천과 수평선이고, 그 위에는 3층 규모의 배 몸체가 비유되고, 위로 솟아오른 옥탑부분은 돛대로 나타난다. 수평선은 층을 구분하는 수평돌림띠와 난간선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돛대의 수직이미지와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평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형상의 이미지는 1983년 3층 규모의 건물에서 4층으로 증축되면서 사라졌다.

전체적인 외관은 전통목구조의 공포구성, 혹은 지붕의 처마구성을 새롭게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수평난간은 인방·도리·장여, 혹은 평고대의 수평선이고, 난간동자는 소로, 혹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서까래와 부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목구조의 형태구성체계를 콘크리트라는 건축재료와 그에 따른 구조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¹⁾. 이 작품은 30년 뒤인 1995년 4월에 준공된 '청주 예술의 전당' 보다 전통적 표현의 형태적 해석면에서 훨씬 심도 있다. 물론 '청주시청사' 역시 당시 일본건축의 경향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 목구조의 구성수법을 현대적 구조의 입면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형태구성요소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청주예술의 전당과는 형태표현-취급이 아니라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차를 보여주고 있다.

'청주예술의 전당'을 직설적 복고주의라고 흔히 언급하고 있지만 직설적 복고주의가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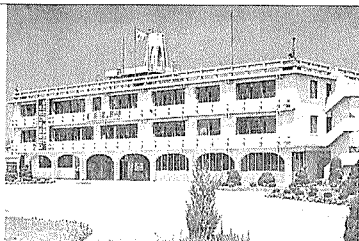


청주지역 문화·역사·체육공원 대상화(帶狀化) 가능지역

- ① 철당간, 영문, 중앙공원, 망선루, 동헌 등 현존하는 구 읍성의 시설군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행정문화유적지역.
- ② 신봉동 백제고분군, 충덕사지 인쇄박물관, 청주 예술의 전당, 시민광장, 체육종합시설단지, 사직공원, 청주대공원 및 종합체육·레저·자연공원지구를 대상화한 교육문화 및 고분유적지역.
- ③ 상당산성, 명암약수터, 자연공원예정지, 우암산, 청주국립박물관, 삼일공원, 당산토성을 대상화한 호국 및 관광자원유적지역(출처: 청주주택지산책, 김태영 지음,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8. 2. 87쪽).

이란 어휘가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직설적 표현은 건축가의 표현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청주시민-물론 이는 건축전문가에 한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이 직설적 표현이 아닌 은유적 표현에 의한 전통해석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작가는 은유적 표현을 어떻게 청주시민에게 공감 느끼게끔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많은 시행착오적인 단계를 거치고서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직설적 표현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던 데 있는 것 같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통적인 한옥요소의 디테일을 재료·구법·기법 등에서 작가적 변용의 과정은 있었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이미 30여년전 청주시청사에서 보인 전통적 표현의 형태해석의 발전적인 전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형태적 사고에서 공간적 해석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실제로 이 점이 현재 한국 건축에서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미발표 건축을 찾아서-청주시청사 및 충북여성회관, 김태영, 건축가, 1995. 3 참조



준공당시의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 예술의 전당 정면



청주대 박물관

2) 1970년대

청주시는 1967년 제1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단행하면서 무심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허가를 시작으로 사직동(69. 5)·수곡(69. 12)·사직·사창·복대지구(72. 7)의 토지구획정리사업, 1차 공업지역 지정(69. 3), 고속 및 일반 여객 버스터미널 부지 결정(72. 12)을 행하였고, 충북의료원(73. 8), 청주우체국(73. 9), 청주대 본관(74. 4), 청주수방서(74. 12) 등이 완공되었다. 1976년에 들어서면서 청주 인구가 20만을 돌파하자, 3월 시는 제2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이어서 12월에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차 공업단지 조성(78. 6)과 더불어 사창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주공 1단지 승인(78. 9), 사직동 아파트 건설사업-주공 2단지 승인(79. 5) 및 수동아파트지구 결정고시(78. 11), 주차장법 제정(79. 4), 청주대 박물관 완공(77. 11), 청주 종합경기장(79. 4), 종합체육관 건립(79. 5) 등이 이루어졌다. 70년대 건축관련 주요 일지로는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개설(70. 3), 선건축설계사무소 설립(75. 2), 대한건축학회 충청지부 설치(76. 12),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개설(78. 3), 충북미술대전 건축부문 신설(78. 10) 등을 들 수 있다.²⁾

3) 1980년대의 청주건축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신봉·봉명(81. 6), 율량(87.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뒤, 봉명(85. 12)·복대(89. 9)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3차 공업지역 지정(85. 9) 등이 이루어지면서 공공 및 민간업자에 의한 저층공동주택과 공장의 건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3차 도시계획 재정비(85. 11)가 시행되기 전후인 84~85년 2개년에 걸쳐 총 120여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도심주변의 주택지를 중심으로 5층 이하의 규모로 지어지다가, 1987년에 사창동 현대아파트가 14층 규모로 사업승인이 결정되면서 고층아파트군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동주택과 공장건축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숙박시설·판매 및 의원시설 등 다양한 건물유형이 사직로

와 상당로의 대로변에 드러나면서 현재와 같은 청주의 도시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서울, 경기 및 대전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들의 두드러진 출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충북대 공학관(80. 3)·사회과학관(81. 6)·농학관(82. 홍순인), 청주 서부경찰서(81. 10, 김수근), 충북은행본점, 제일생명(83. 고려건축), 정식품(84, 유일건축), 청주대 중앙도서관(84. 6, 김종성), 충북대 중앙도서관(85. 11, 이상현), 한국은행 청주지점(85. 김기웅), 동일방직(85. 장석웅), 학천탕(87. 승효상), 국립청주박물관(87. 8, 김수근), 청주체육시설(세쌍동이 건물 '89. 김정철), 충북도립도서관(89. 범아건축), 대우증권(89. 서울건축), 민병열 산부인과(89. 오양건축) 등을 들 수 있다. 80년대 건축관련 주요일지로는 충북대 공대 건설공학계열 특성화 지정(80. 3), 건축가협회 충북지부 결성(창립회원 18명, '81. 10), 충청실업전문대학 건축설비과 개설(85. 3), 서울병원-도심 고층건물문제 논의, 충북대 대강당 철거(88. 6), 흥덕사지 복원공사(88. 7~89. 6) 등이다.

3) 1990년대

1992년 1월 6일 청주시는 제4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단행하였으나, 93년 1월 우암상가의 붕괴로 말미암아 한국 현대도시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제도 수정을 낳는 계기가 되었으며, 95년 6월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는 더욱 가시화되어, 철저한 건축공사감리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을 보았다. 설립 당시부터 비대한 인원 조직으로 인해 전체적인 기술자의 안배에 문제를 안으면서, 이는 건축계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고층아파트의 건설은 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붐이 도심 북·서·남부 외곽의 신형주택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도심으로도 고층건물이 차츰차츰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고속버스터미널 남쪽 서문시장내의 9층 근린생활시설(90)과

2) 충북예총 30년사-회원단체약사: 건축가협회, 김태영, 1993. 4 참조



청주 영운동의 주택지



청주 사창동 주공 1단지



청주종합체육관

청주읍성내 북문로 1가의 9층 풍성실업 건물(91)이 도심안에 들어서고, 북문밖 삼충로변과 사직로 및 상당로변을 중심으로, 북문로 3가의 대한생명(92. 13층, 천일건축), 사창동의 삼성생명(94. 10층, 삼우건축)·현대코아(94. 9층, 종합환경그룹), 북문로 2가의 자연타워(95. 13층, 한울건축), 남주동의 신일마트(96, 정건축), 북문로 3가의 대우타워(14층, 사창동의 대림사옥(96. 10층, 기단건축), 한국통신사옥, 그리고 96년에 사업승인된 분평 C-1블럭의 25층 아파트 등이 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과 사무실을 들 수 있다. 사직로와 상당로, 그리고 흥덕로 변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들 건물 - 특히 의원건물 -은 시대의 유행을 전달해주는 건축외관과 재료를 반영하고 있다. 90년대는 청주예술의 전당(90. 2), 서부출장소(90. 9), 가경 2지구 한국통신전화국(92), 상당구청(94), 충북과학교육원(96. 8) 등 많은 공개현상설계경기와 함께 각종 건축문화발견세미나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청주건축의 활발한 성숙기를 맞이한 시기이다.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직체육시설단지내의 넓은 시민광장을 확보한 청주예술의 전당 준공(95.4)을 보았으며, 이와 함께 애초에 청주예술의 전당 부지 옆에 세워질 예정인 서부출장소가 예술의 전당 부지의 협소함을 이유로 사직체육시설단지내 테니스장의 좁은 부지에 자리하여 원래의 작가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준공을 보았다. 우암동의 옛 청주방직자리에는 청주 동부경찰서와 상당구청이 들어서면서 이 곳의 도시경관을 변경시키고 있고, 사창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역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97년 청주국제공항이 개통되어 일반인에게 다이나믹하고 하이테크한 현대적 이미지로서 공항건축의 소개가 있었으나 홍보부족, 접근도로의 미확보 등으로 아직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건축관련 주요일지로는 대한건축학회 충북지부 창립(92. 3), 한국건축가협회 충북지회 발족(93. 2), 제1회 충북건축디자인캠프 개최(93. 6. 29~7. 3), 감리전문회사 설립(94),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제정(94.12), 서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설(96. 3) 등이다. 이와 같이 청주시청사

의 준공을 기점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주 현대건축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0여년이나 되는 시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쩌든 무리가 있는 것이어서, 무책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이 시작이라든가 관점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일-보는 건축, 사는 건축, 그리고 자연건축

이 장에서는 '내일의 청주건축은 어떠해야 하나?'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그동안 청주 도시경관, 도심 고층건물문제, 망선루와 일부 읍성곽의 복원, 아파트, 높고 낮은 것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의논이 많이 개진되었으나 의논하여 가는 가운데 더욱 애매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주제는 감각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혹은 예전 부터의 '청주다운 것'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혼동되어 결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도시의 발전방향과 사는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타협을 할 것인가와 또 하나는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자연을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라는 두가지 테마에 초점을 두어 청주건축이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해보기로 한다.

게시탈트 심리학에서 「그림(圖, figure)」과 「바탕(地, background)」이론이 있다. 그림에서 하얀 곳에 착안하는 것인가, 검은 곳에 착안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하얀 곳에 착안하면, 하얀 부분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하얀 부분에 주목하면 새끼말이 떠오르지만, 검은 부분에 착안하면 새가 날고 있는 그림으로 된다(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생겨난다. 청주의 건축은 70년대, 아니 가깝게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림」으로서 보다는 「바탕」의 건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금방 띄이는 건물이 나타나 「그림」의 역할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당시의 평범한 건물이 「그림」으로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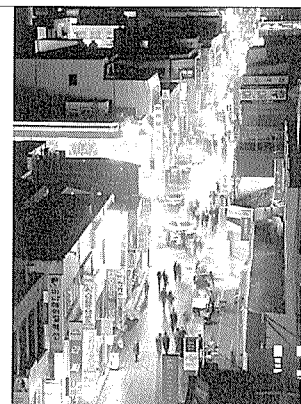
우리가 새로운 건물, 특히 눈에 금방 띄는 형태



청주 윤천동의 다세대 주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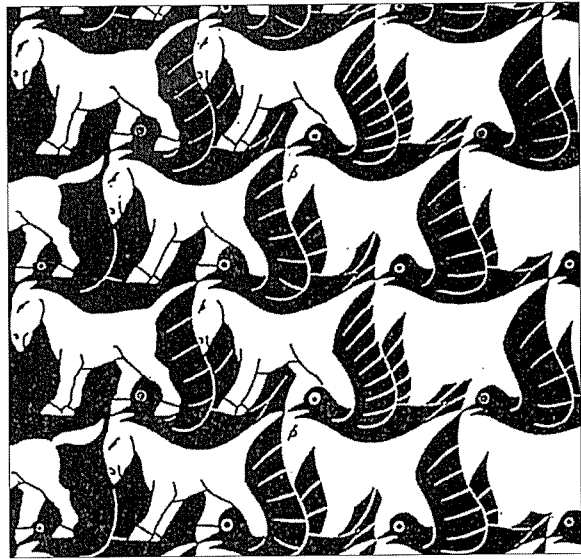
청주 성안길의 낮과 밤



를 처음 보면, 그 형태의 이상아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속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덜 놀랄 만하게 될 때 더욱 철저하게 보게 되지만, 못내 실망하게 된다. 물론 신기함의 기대에 따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상하리만치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된다.³⁾ 이와는 달리 우리가 매일 보아 왔고, 보고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물은 무의식중에 우리의 의식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 같다. 이는 평범한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수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일부, 즉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도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바탕」으로서의 건축인 것이다. 이러한 「바탕」으로서의 건축은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형태표현을 통해 주변의 자연환경(Natural Surroundings) 및 도시환경(Urban Context)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 삶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기능적 편리함을 추구하게 된다. 기능적 편리함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물리적 쾌적성과 시청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공간을 지각하는 심리적 쾌적성 역시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건축공간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외에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억, 추억이 공간의 분위기를 인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의 체험에서 겪은 작은 규모의 공간, 크게 감명받거나 자극받았던 공간의 반영 역시 새로운 공간의 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보는 건축으로서의 자연 및 도시환경 인식은 사는 건축에 있어서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안정적인 도시와 자연의 원충공간이라 할 수 있는 중정과 옥상정원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게 되고,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 트인 반옥외공간인 내부공간 역시 밖을 향해 열려 있다. 빛과 바람은 이들 공간에 의해 조절되어 작은 공간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풍경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자연 및 도시환경을 인식하는 디자인의 실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옛 건물, 특히 일반 서민주택의 변화과정-증축 및 변경-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거기에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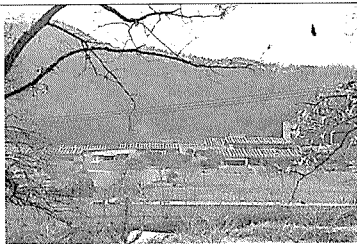


그림과 바탕(지각심리학의 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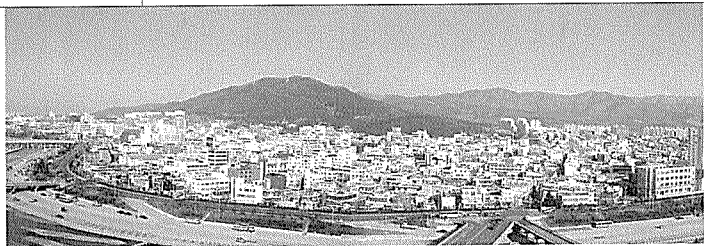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옛스러워서 좋은 것은 남아있고, 새로워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실제로 청주만의 독특한 특성은 청주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물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은 건축은 시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자연과의 접촉 관계가 중요하여 건축으로의 시각에서 자연으로의 시각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타 도시와는 달리 양호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흔적을 명확히 보전하고 있는 청주지역에 있어서, 「그림」과 같은 건축으로의 시각에서 자연 및 도시환경을 인식하는 건축으로의 시각조정을 통하여 솔직하고(Plain), 겸손한(Modest) 표현을 갖추게 될 때 청주의 미래건축은 그야말로 특색있고, 살아있는(Living) 건축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⁴⁾

3) 도시주택의 공간구성원리, 김태영, 대한건축학회 충북지부 특강자료집, 1997, 4참조
4) 청주건축·자연건축, 김태영, 선종합건축 창립20주년 기념문집, 1995, 2참조



청주박물관



청주시 전경